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측면 지원

고성중고 총동문회, 모교 운동부에 15인승 승합차 기증하기로...기수별 협찬금 모집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키의 '메카'로 명성을 날렸던 고성군에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본보 제30호 보도, 9월 21일자) 가운데, 고성중고 총동문회(회장 정달수)가 모교 바이애슬론 선수 육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운동부 차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중고 총동문회는 지난 18일 열린 4/4분기 정기이사회에서 바이애슬론, 사격, 스키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된 모교 운동부의 차량지원을 위해 2천300만

원을 들여 15인승 승합차 1대를 구입해 기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성중고는 그동안 바이애슬론 국가 대표를 수시로 배출하는 등 해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왔지만, 전용차량이 없어 장비와 선수 이동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바이애슬론은 장비류가 무겁고 부속장비도 많아 전용차량이 없을 경우 출전 장소에 선수 투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는 코치가 개인 차량을 이용해 학생 수송 및 장비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 차량이 마련되면 출발단계에서부터 대회 마무리까지 학생 및 장비수송이 원활해져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중고 총동문회 한창수 사무총장은 "동문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주면 유지·운영은 모교에서 하기로 했다"며 "총동문회 예산과 기수별로 강제성이 없는 협찬금을 모집해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건강 새싹 함께 키워요”

고성군보건소, ‘웰빙어린이만들기’ 운영



고성군보건소의 웰빙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고성군보건소가 성장 발달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자발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하반기 ‘웰빙어린이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 간성어린이집, 천진어린이집, 프리벨어린이집 등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11개소 총 598명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영양교육인 백설공주 인형극과

성장체조 율동하기, 영상교육자료 시청 등으로 미취학 아동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웰빙어린이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 4일 이상의 아침 결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만, 영양, 운동 등 분야별 올바른 실천교육으로 아동의 건강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보건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관내 11개 어린이집 원아 59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웰빙어린이만들기 교육을 추진했었다.

원광연 기자

‘북천철교’ 평화누리길로 새단장

18억9천여만원 들여 자전거교량 191m·자전거도로 311m 완공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후 방치되고 있던 ‘북천철교’ 자리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자전거전용 교량이 설치되고 이 교량과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고성군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기관단체

관계자와 전국 자전거동호인,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누리길’ 준공식 및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

평화누리길은 18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11월 착공해 지난 9월 14일 자전거교량 191m와 자전거도로 311m를 완공했다.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후 방치되고 있던 ‘북천철교’ 자리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자전거전용 교량이 설치됐다.

평화누리길 준공식에 이어 북천철교에서 송포리~거진공군부대 입구~화진포해양박물관~거진읍사무소 광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전거 대행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대행진이 끝난 후 제13회 고성명태축제장을 찾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북천철교 교

량 하부의 폐철각을 들여다보면 한국전쟁 당시 생긴 포탄자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염원하는 관문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상시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내년부터 1년간 근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내의 선거관련 정보 수집 및 단속업무를 보조하고,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감시 활동을 하는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2일부

터 12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1일 7만원선이다. 주 5일 근무시 하루는 유급 휴일이 적용된다.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성과수당도 지급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는 12월 13일까지 개별통보한다.

〈문의 : 681-2167〉

최광호 기자



고성군 거진전통시장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고성군이 지난 26일 오후 2시 거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조의교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군청 공무원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원광연 기자